



표지사진 : 2001년 4월 22일, 부산항에서 함경북도 나진·선봉으로 비료와 비닐등 농업용 자재를 보냈습니다. 비료가 실린 배에 마음까지 실어 봅니다.

## JTS 통권 29호 2001년 5·6월

펴낸날 : 2001. 5. 7

펴낸이 : 법 룬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이순희  
이상임, 정영희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 인도

- 4 인도 동계스와리 소식  
기바기병원 소식 등  
인도특집 - 엄미애의 국제 NGO 인턴봉사 보고서

### 북한

- 10 지금 북한에서는  
이 한뫼 분주하여 북한어린이들의 양식이 된다면  
도시에 비가 내렸다.  
북한 비료 보내기 행사에 다녀와서

### 청소년

- 12 아름다운 청소년  
봉사하는 아름다운 청소년

### 그리고

- 14 후원의 밤 스케치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 16 후원의 소리  
후원의 밤을 보내며  
모양짓는 나
- 18 광고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인도체험봉사활동  
살얼겨 및 살겨 노동자 집단상담(수련) 및 연극 Workshop
- 20 활동보고 및 안내
- 22 부산 후원의 밤 후원금 현황
- 26 통일대지 후원금 현황
- 27 신규회원 명단
- 29 결연단체현황
- 34 후원프로그램 안내



## JIVACA Hospital

### 환자 일지

자그디스푸르에 사는 실라데비는 24살의 유부녀이다. 결핵으로 인해 왼쪽 옆구리 쪽에 물이 차서 빨리 수술을 해야하며 수술 후 결핵약으로 꾸준히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실라의 아버지도 지바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결핵 환자이다.

자그디스푸르에 사는 22살의 기타데비는 임신인 줄 알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이는 죽었고 그곳에 혹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 더운 계절이기도 하고 수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라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약물치료법을 찾고 있고 일주일 더 지켜본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Medical Cure Camp

9~14일 까지 6일 동안 수자타 직영 유치원과 마을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 중이다. 주로 귓병과 건기철이라 물이 없어 씻지 못해 생기는 피부병과 상한 음식으로 인한 복통 환자가 많다. 한국에서 보내준 구충제 한알과

### 정정임 (인도 JTS 마을개발담당자)

천연두 예방 물약을 전체 학생들에게 투약했고 바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다음날 유치원 교사가 병원에 와서 받아가도록 했다.

갑자기 더워져서 계절병의 하나인 피부병으로 학교 식구들이 한차례 고생을 하고 있어 지바카 병원에서 예방약과 치료제를 만들어 전체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Sujata Academy

새학기를 위한 시험이 끝났고 시험결과를(통지표)를 배부하였다. 수자타 직영유치원 시험에 응했던 62명의 어린이에게 짜파티 파우더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수자타의 입학 을 원하는 직영유치원, 마을유치원 어린이의 시험이 4월 11일날 있었다.

4월 8일 가야의 Youth Buddhist Society의 자원활동 교사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있었는데 J.T.S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 마을개발사업

4월 9일부터 14일까지 JIVACA병원의 협조하에 마을 유치원의 건강 check

program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두리와 sweety가 함께 참여하였고 병원에서 약을 나누어 줌과 동시에 마을개발사업측에서는 비스킷과 사탕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활동 중에 마을 부녀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부녀회 이름으로 통장개설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달에 시작할 마을 부녀회의 문자해독을 위한 Women's Educational Program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4월 21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을 개발 사업에서 개최하는 Hindi Speech Contest를 수자타아카데미 직영유치원과 마을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Hindi Speech Contest는 마을 어린이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과 동시에 마을개발사업을 위한 의식변화의 계기를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 Wimala스님 한아디!

### 아이들 급식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등교 시간이 아침 7:00시로 앞당겨졌다. 급식시간 9시 30분. 마땅한 음식 먹거리가 이 시기에는 없다. 의논 끝에 밥과 달보다는 월~금까지는 간단한 스낵 종류로 하고 토요일은 특별식으로 과일이나 야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주일 장을 보러 나갔다. 적은 예산으로 (1주일 100\$가량) 일주일 여름 영양식은 말 뿐이다. 콩불려 양념한 것, 삭두리는 우리네 미식가루, 과자, 빵(앙꼬없는), 뽕튀기, 토마토, 바나나...

더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고 싶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 이런 것이라도 배불리 먹여야지 하고 급식을 나눠주지만 생각보다 많이 먹지를 못한다. "맛있니?" "좋으니?" "어때"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물어보면 언제나 아이들은 같은 말을 한다. "아차해 (좋아요)" 늘 미안하다. 한끼 식사를 언제쯤 만족스레 차려줄 수 있을지.... 한편 맛있다는 그 말 한 마디에 내일은 정말 정성껏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리라 마음먹는다. 상급생 아이들이 점심준비하는 근처로 다가온다. "따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기분이 좋다. 더위도 달아나고 힘도 생기고, 예쁜 아이들 때문에..."



## 국외 NGO 인턴봉사 보고서

엄미예

기간 : 2000년 9월 7일 ~ 2001년 2월 15일

봉사장소 :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에서 12Km지역의 Sujata Academy (초등 · 중등 교육기관, 인근 마을에 11개의 유치원이 있음)

### 현지 봉사활동 세부 내용

- ① 병원 - 무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간단한 드레싱 · 진로카드 정리와 기타 보조활동, 한국에서 지원한 약품의 정리 및 영어번역이 주된 업무 - 최수진
- ② 학교 지원 활동 -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 준비 및 배식, 예체능 수업진행, 각 마을 유치원 방문과 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 위생상태 체크 등 - 이수민, 엄미예, 이효진
- ③ 건축업무 - 병원 신축공사 및 학교 증축공사, 마을 유치원 보수 및 신축, 중등교육학교 신축을 위한 모든 업무 - 임경 화
- ④ 농사 - 학교 무료급식을 위한 농산물의 직접재배(무우,가지,배추,쑥갓,시금치,상치...) 및 마을 사람들을 위한 농업개량의 시범 - 김영일
- ⑤ 마을개발사업 - 인근 12개 마을의 11개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마을 개발을 위한 공동노동(쉬라마다나)활동의 지원 및 계획, 마을 부녀회의 조직 · 교육 및 지원, Youth Group 조직 · 교육 및 지원,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우물 · 핸드펌프 설치지원, 모자보건활동 -이효진



## 자원봉사내용

처음 한 달은 트레이닝 기간으로 적용 기간을 가졌다. 처음 일주일은



병원 짓는 곳에서 일을 했다. 벽돌을 나르고 부수고, 흙을 파서 날랐다. 처음으로 해보는 육체 노동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맨발로 부드러운 흙을 밟고 일을 하니 그 촉감이 너무 좋았다. 또 농사일도 했는데 맨땅의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신기했다. 힘들 때마다 쉬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전정각산 너머의 유치원을 비롯해 마을 유치원을 방문했다. 신발을 신고 넘기도 힘이 드는데 매일 맨발로 이 돌산을 넘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각자 자기 업무에 들어갔다. 경호 언니는 전공을 살려서 병원 건축 일을 했고, 수진 언니는 지바카 병원 일을 도왔다. 나는 수민 언니, 효진 언니와 함께 학교 아이들 점심 급식일을 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급식 준비를 했다. 150명분의 밥을 짓고, 달(콩이 들어간 카레)을 끓였다. 그밖에도 한 명은 하교에 남고, 두 명은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요일에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을 유치원으로 점심을 날랐다. 사이클 릭사에 달, 밥, 그릇을 신고 월

요일에는 소라지비가, 수요일에는 아자드비가, 금요일에는 망코취힐에 있는 마을 유치원을 방문을 했다. 그런 날이면 유치원에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왔다. 보통 남자 어른의 양보다 많은 밥을 한자리에 똑딱 해치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마을 유치원으로 급식을 나가지 않는 날은 밥 대신 바늘과 실, 단추를 들고 아이들 옷을 꿰매 주었다. 깨진 독에 물 붓듯 자꾸 꿰매 주어도 아이들 옷은 항상 뜯어져 있었다. 또 목욕도 씻겨 주었다. 비누로 목욕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씻는 아이들도 있었고, 상처 난 부분이나 곪은 곳에 약을 발라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두들 깨끗한 환경에서 티없이 자라 눈이 맑고 예뻐다. 영양이 부족해 비쩍 마르고 배가 볼록 나오고 피부도 거친 아이들을 보면서 같은 시대에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느꼈다. 너무 나 자신만은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

처음 마을에 나갈 때는 우리를 보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지역 특성상 관광지라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그런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로 오게 할 것인지 말이다.

오후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모자를 쓰고 뜨거운 태양 밑 아래에서 시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 주고, 물을 주었다. 언니들 외에도 학교에서 함께 지낸 남자 리더들과 함께였다. 처음으로 마

음을 써 가며 배추, 무, 상추를 길러보니 땅의 소중한도 알게 되었다. 이런 마른땅에 서도 잘 자라는 작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참 고마웠다. 덕분에 우리들의 밥상은 푸짐했다.

그밖에도 비정기적으로 아이들 교과서를 비닐로 사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나 학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옷가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한 달은 새로 지은 망코시힐 유치원을 꾸며 주었다. 점심을 싸가서 하루종일 그곳에서 지냈다. 오전에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나 종이 접기를 같이 했다. 생전 처음으로 종이 접기를 하는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 네모난 종이가 물고기, 원숭이로 변하니 얼마나 신기했을까? 오후에는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가고 우리는 유치원 벽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한쪽 벽에는 바다속 그림을 한쪽 벽에는 나무그림을 그려 주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붙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열심히 했었다.



소, 학교 청소 등을 했다. 그리고 아침식사 후에는 각자의 일터로 나간다. 나는 급식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마을유치원에 나가거나 학교에 남아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어주었다. 한 낮에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 휴식을 취했다가 2시 30분부터 농사일을 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면 하루 업무가 모두 끝나고 모두 모여 즐겁게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썼고, 가끔은 함께 모여 차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 생활

처음에는 화장실 문화며, 식사에 적응을 하기에 애를 먹었다. 밤에는 설치는 쥐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지만 한 두 달 지나다 보니 아무 일도 아닌 듯 편안해졌다. 주말에는 보드가야에 나가서 일주일의 피곤을 풀었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왔다.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었고 편지를 부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두 번의 큰 축제가 있어 그 때에는 다즐림여행하기도 했고, 보드가야에서 혼자 긴 휴가를 즐기기도 했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는 마을 집 말고는 아무런 건물도 없는 초원이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전동기를 돌려야 했다. 밤에는 한 두 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자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했다. 전기가 없으니 더욱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보였다. 유난히 예쁜 날이면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촘촘히 박힌 별들을 보면 어린

## 하루일과

우리의 하루 일과는 4시 30분 새벽 예불로 시작했다. 그 때면 맑은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도 그 소리가 그림다. 나는 예불에 참석하지 낱고 5시 30분의 Family Gathering에 나갔다. Family Gathering은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루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제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는 시간이다. 아침식사 전까지는 각자 맡은 일을 한다. 아침밥 짓기, 점심 급식 준비, 법당청

왕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이 급해서 나갔더니 달빛이 너무 밝아서 놀랐다. 그래서 이 불을 갖고 올라가 달을 보며 자기도 했다. 그리고 워탈라 스님 덕분에 명상을 알게 되어서 한 달 정도 해보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 느낌

9월초의 짧은 축제 기간을 이용해 캠퍼 타의 마더 테레사의 하우스에서 봉사를 했다. 단 이틀간의 봉사였지만 수자타 아카데미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드리면서 눈물이 났다.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며 인생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10월말에는 바갈푸르 수해지역에 학교 리더 아이들과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우리 봉사단 모두가 갔다. 사전준비의 미숙으로 많은 일을 하고 오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자고 먹음으로써 더욱 가까워졌다. 수해지역 아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리더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 그 밖의 일

관계 이전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서로가 인연이 없는 타인이다. 그가 굶주리건, 그의 시력이 원시이든 근시이건 상관없다. 그런데 서로가 낮을 익히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때부터는

관심이 달라진다. 그 존재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그 전에는 알고 있지도 못한 곳이 지금 그곳은 비가 내릴까? 푸른 새일이 돋았을까? 이처럼 그쪽의 날씨에까지 마음을 쓰게 된다. 작은 인연으로 만나 이제 수자타는 나에게 하나의 고향이 되었다. 그 곳만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폐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서서히 일을 시작함에 따라 힘들었던 것보다는 내가 쓸모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봉사활동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서로 배려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수록 서로 감싸 안아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봉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6개월을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일을 도왔다기보다는 같이 일을 했다는 느낌으로 말이다..

그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애착이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 이 한 몸 분주하여 북한어린이들의 양식이 된다면

이지현 (한국JTS 사무국장)

올 봄 참으로 분주하고 바빴다. 지도도를 통해 북한도 여러 번 갔다왔고, 기금지원 프로젝트 제출 및 결정, 물자의 운송 등 그간 해오지 않았던 무역일, 물자구입, 관계 부처와의 만남 등등 2, 3, 4월 그 어느 해 보다도 분주하게 보낸 봄이다. 그 만큼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배급이 5월 초부터는 끊어질 전망이라고 한다.(4월 25일자 한겨레신문) 아마 40대 이상의 분들은 남한에서도 겪었던 어린시절 봄철 춘궁기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자란 시골 또한 봄철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기 전까지 무척 배고픔에 굶주렸던 친구들이 기억 난다. 보리가 익어 탈곡을 하고 나면 완전 '콩보리밥'을 해먹고 소나무 줄기를 벗겨 먹고, 냉이 캐서 죽 끓여 먹고.....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로 만든 빵이 점심때 배급되었고, 특별한 날은 끓인 우유를 먹던 기억이 난다. 그때 그 우유의 이상한 맛에 질색을 하곤 했지만.....

1960, 70년 초반까지 이어진 이러한 농촌의 풍경들이 남한의 우리들에게는 다 잊혀져 버린 추억이 되어 버렸다. 망각은 좋다고 하지만 또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장벽이기도 하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30년 전 남쪽의 상황이 2001년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생강꽃이 반발한 보라매 공원에서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임공동대표였던 김영수목사님을 보았다. 목사님은 '배가 고파본 사람은 왜 배고픈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설명을 안해도 안다. 배고픈 고통, 물을 마시며 멍한 눈으로 노란 하늘을 보고 참담해진 그런 심정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굶주리는 북녘 동포를 도와야함은 그냥 절로 안다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는다.

초목이 무성해지는 여름으로 가는 활기찬 기운 속에서, 움추려 있을 굶고 있는 북녘의 형제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JTS 사무실에서의 바쁜 나날들, 하루 이틀쯤 밤을 새웠다고 기금 모으고, 물건 구하고, 북한으로 물자 수송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번다한들, 그들의 배고픔 앞에서야.....

## 도시에 비가 내렸다

최양희 (JTS 회원관리부)

도시에 비가 내렸다. 얼마나 기다리던 비였던가. 부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새벽에 떠나 서울에 왔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둘러 인천항으로 떠났다. 북한으로 떠날 비료를 선적하기 위해서이다. 여의도도 벚꽃축제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 때 아닌 벚꽃구경을 했다. 만개해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다. 약간 들뜬 마음으로 인천항에 도착하니 짐을 실은 컨

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우린 북한으로 보낼 비료를 보고 사진도 촬영했다. 간단한 의식을 하려 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법륜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를 하고 설명을 들었다. 비료 한푸대가 5배로 돌아온다고 하니 왠지 흐뭇했다. 늘 이야기로만 듣다 이렇게 직접 와 보니 실감이 났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회원님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이렇게 충분히 보낼 수 있음이 좋다. 언젠가는 황해북도 연탄군에 있는 참매농장에 가서 볼 수 있길 기원해본다. 이 비료로 더욱 많은 수확을 올려 이들이 행복했으면 한다. 내일이면 북한으로 떠나리라. 우리의 가곡 “떠나는 배”가 유난히 생각난다. 회원님의 정성스런 마음에 감사드린다.

‘북녘 동포를 도웁시다’하면서 부산역에서 목이터져라 뛰어다녔던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를 질푽거리며 다가와 동전을 쥐어주던 노숙자 아저씨. 방긋 웃으며 인사하고는 엄마가 쥐어주는 돈을 들고 다가오는 해맑던 아이. 열심히 하라며 성금 돈을 넣어주고 가던 아저씨.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굶는데 북한 농들을 돕느냐며 모금함을 차고 가던 아저씨. 왜 그리고 바쁜지 모금함을 보고는 열심히 뛰어가던 아가씨. 살며시 웃음이 나며 그들이 고맙게 느껴졌다. 나의 그런 기억들이 가슴 벅찬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 4월 11일 인천 CFS에서

## 북한 비료 보내기 행사에 다녀와서

유남옥 (부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부장)

부산항으로 향했다. 북한으로 보내는 비료를 선적한다는 바람찬 부산항으로... 그곳은 참 거룩하고도 고요했다.

한창 씨뿌리기를 해야 할 철이다. 여기 놓인 비료하나가 그들에게 포만감으로 다가갈 바란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비료들을 뒤로하며 난 웃으며 돌아선다.



- 4월 22일 부산항 중앙부두에서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 청소년봉사활동반(담당 김성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흥사단에 있는 국제교류지도자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국제협력봉사반(담당 이민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JTS의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하는 장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동상황을 실어봅니다. 청소년들이 생명을 살리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연결 지어준 단체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1. 처음 JTS와의 인연은 인도여행을 하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JTS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어 알게 되었고, 인도여행 후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모듬별 평가(북한반, 인도반)는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봉사활동의 동기부여가 커서 활동이 매우 컸다. 또한 모금활동을 갖고 국제 후원기관인 (주)제이티이에스에 조대여고 봉사단이 후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3. 2000년도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 소감문을 공유한다.  
봉사활동을 하게 된 첫날에는 다음에 하게 될 모금활동을 위한 준비를 했다. 패널을 만들고 모금함도 만들었다. 패널에는 나진 선봉지역에 있는 JTS라는 공장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트럭에 실어 나르는 과정을 찍은 사진과 북한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와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알 수 있었다. (연변반 조대여고 김유진)

우선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들 모두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여러 과정을 밟고, 또 실제로 활동을 함으로써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된 우리는 준비물 준비 단계를 비롯하여 모금활동, 편지 쓰기, 물품 모으기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특히 주 활동인 모금활동은 단체 활동이니 만큼 서로에게 배려가 있어야 했고, 또 이 활동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

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우리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만드는 활동이었다.

(인도반 조대여고 김슬기)

처음 실시되는 반이라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봉사활동을 어느새 마치고 평가의 시간에 서 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아쉬워했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로 하는 봉사활동은 예전에 내가 했던 일상적이고 흔한 봉사활동과 아주 많이 비교가 되었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봉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언젠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닿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북한반 조대여고 송호영)

5. 활동하는데 어려웠던 점이라면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모금활동에 학생들이 난감해 하였고, 지도자 대학생이 활동을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
6. 향후 계획은 2001년에도 조대여고 학생들이 인도반 11명, 북한반 12명으로 활동을 할 것이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대학생과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대하려 한다.

7. 밖에서 본 객관적인 평가는 세계를 인식하는 안목을 기르며 국가를 초월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처음에 세웠던 목적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



##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장도연 (부산정도외 사무국장)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안내자들의 밝은 웃음을 한껏 받으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깨끗한 공연장 안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푹푹 딱딱 푹푹 딱딱 법고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긴 장삼을 수하신 법륜스님께서 핀 조명을 받으며 온 공간을 법고의 울림으로 장엄합니다.

이어 그동안 법회 후편 꾸준히 준비를 해 왔던 정토포럼 신도님들이 긴 가사를 걸치고 정면 가득 채워진 석굴암 부처님을 향해 예불을 올립니다.

북한과 인도어린이 돕기를 꾸준히 해온 제이티에스를 소개하는 영상보고에 이어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깊이 숙인 인사 속에 담은 제이티에스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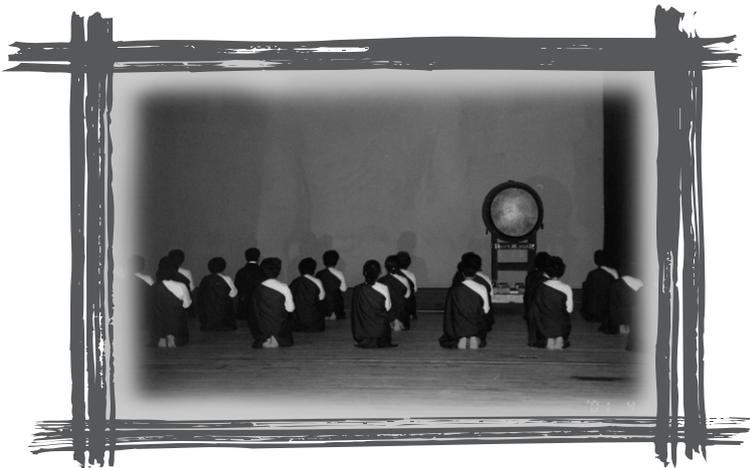
수자타아카데미를 다녀오신 혜총스님의 가슴 따뜻한 격려사, 북한에서 온 친구가 부모님을 그리며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며 읽은 편지, 600여 명의 후원인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97년부터 꾸준히 북한동포돕기 거리 모금을 해 온 부산지역 청년, 대학생 단체, 그리고 결성한 이 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라진 선봉지역 유치원, 탁아소 6곳을 지원하고 있는 작은이들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영상 속의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레스 찬드라 교장선생님은 밝은 미소를 띄우고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편지를 읽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김영준 교수님의 바이올린 연주가, 혼성 중창단 LMB Singers의 아름다운 화음이, 성악가 엄정행씨의 박연폭포가 후원의 밤을 한층 더 무르익도록 해 주었습니다.

색깔 종이를 두루마리로 말아 리본으로 묶은 '후원인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한복을 입은 안내자들이 하나 하나 나눠주는 동안 맑고 차분하면서도 정감있는 정목스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황금보다 귀하고 꽃보다 예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길을 한국제이티에스는 가고자 합니다...정목스님의 말씀에 눈물어리며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는 후원자들.

겨우내 추위 이겨낸 4월의 피어나는 보리처럼 파릇한 인도의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 그 고사리 손에 희망과 사랑을 보냅니다. 더 나아가 배고프고 아픈, 배우지 못한 제3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 작은 발걸음에 부산 후원인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 어갈 아름다운 세상. 잔잔한 감동과 밝은 희망을 안고 대공연장을 나가는 후원자님들이 인사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한 실무자들이 아니라 후원의 밤에 오신,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제3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나가시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 후원의 말을 보내며

- 이명우 (후원의밤추진위원)

Join Together Society

제이티에스란 명구가 새겨진 희멀건 조끼를 입고 스승님의 땅 인도를 헤맨 지도 어언 넉달이 흘렀다. 곳곳마다 내미는 깡마른 새까만 손, 한 생 내 모습같은 수도 있다는 연민의 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으로 묻어 나와 금새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먼 하늘을 쳐다보며 끔찍거리다 날이 볼 새라 슬쩍 훔쳐냈던 기억이 새롭다.

기아 질병 문맹 퇴치운동. 항상 서구로부터 받아왔던 기억에 우리도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잃어버렸는데 조그마한 정성들이 모여 머나먼 땅에서 구원이 빛이 될 줄이야.

수자타 아카데미. 주위 산야가 낯설지 않은 땅. 삭막한 땅에 오아시스같이 목마름을 적셔주는 곳. 아! 그리고 서럽고 감사한 곳. 옛 말에 위선제락(爲善最樂)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왼 손 가시를 오른 손이 뽑아주듯 당연한 행위다.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이다. 제이티에스 후원의 밤을 맞아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의미있는 밤을 보냈다. 맘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이런 단체가 있기에 기회를 부여받아 기쁘다. 제이티에스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며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모양짓는나

- 정 예 리

잔잔한 호수에 돌맹이를 던졌지  
파동이 일더군  
눈을 감고 기다렸지  
파동이 진동되어 내가슴에 전해오기를  
한참후.....  
눈을 떴지

진동은 일어나지 않았어  
주위는 고요했고 호수는 아무일 없는듯  
물결위로 내모습 담고있었지  
그 깊이도 측정할 수 없었어  
다만  
물고기 되어 노니는 내모습.  
꿈꿀뿐....



## 제3차 JTS 국제워크캠프

### 젊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인도 자원봉사활동

#### 사랑의 집짓기

인도에서 펼쳐는 10일간의 국제봉사활동!

노동을 통해, 봉사를 통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가슴 뜨거운 청년, 대학생들은 오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

인도에서 펼쳐는 10일간의 국제봉사활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캠프기간 : 2001년 7월 8일 (일)~7월 22일 (일) 13박 14일
2. 봉사지역 :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보드가야 근교 동게스와리
3. 모집인원 : 약 80여명
4. 모집대상 : 해외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세계의 청년, 대학생.
5. 활동내용 :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집 짓기, 처마 고치기  
-동네 꼬마들 돌보기, 씻겨주기  
-나무 한그루, 희망 한그루 망고나무 심기
6. 소요경비 : 참가비 3만원 (사전교육비, 통신비, 기념품등)  
항공료, 수속비(비자, 여권, 예방접종등) - 본인부담(약 90만원)  
현지숙식, 체류비 - 인도 JTS 부담.
7. 접수기간 : 2001년 5월 1일-2001년 5월 31일
8. 접수방법 : JTS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보내고 아래 은행계좌로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 086-21-0626-011(예금주: 이지현)
9. 접수문의 : 국제워크캠프 담당자 김경희(khkim@jts.or.kr)  
(전화:02-587-8756 팩스:02-587-8998 홈페이지:www.jts.or.kr)  
137-8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수련) 및 연구 workshop

## - 행정자치부 지원 프로그램 -

### 깨달음의 장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느새 화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 순간 순간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있게 됩니다.

• 교육일정

1차 5. 9(수)~13(일)	8차 8. 1(수)~ 5(일)
2차 5.23(수)~27(일)	9차 8. 8(수)~12(일)
3차 6. 6(수)~10(일)	10차 8.15(수)~19(일)
4차 6.20(수)~24(일)	11차 10.10(수)~14(일)
5차 7. 4(수)~ 8(일)	12차 10.24(수)~28(일)
6차 7.13(수)~17(일)	13차 11. 7(수)~11(일)
7차 7.18(수)~22(일)	14차 11.21(수)~25(일)

### 나눔의 장

‘나눔의 장’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마당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넉넉해지지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서 우리가 되는’ 그 감동을 스스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1차 : 5. 9(수)~13(일)	5차 : 8.15(수)~19(일)
2차 : 6. 6(수)~10(일)	6차 : 10.10(수)~14(일)
3차 : 7.13(금)~17(화)	7차 : 11. 7(수)~11(일)
4차 : 8. 1(수)~ 5(일)	

❖ 수련공통

- ❖ 참가대상 : 실직자 또는 실직 노숙자
- ❖ 혜택 : 20만원의 교육비 전액 지원
- ❖ 모집인원 : 매회 4명
- ❖ 수련장소 : 문경정토수련원  
(☎ 0581-571-6031)
- ❖ 수련신청 : (사)한국제이티에스  
전화(02-587-8756, 8995)  
팩스(02-587-8998)  
<http://www.jts.or.kr>  
이메일(ypower@jts.or.kr)
- ❖ 신청방법 : 전화면접(수혜대상자 및 추천자)

### 실업자 및 실직노숙자 집단상담수행 결과 Workshop

<b>일시</b>	2001년 12월 20일(목) 오후2시-5시
<b>장소</b>	정토회관 2층 강당
<b>참가대상</b>	실업자 및 노숙자 프로그램 담당자 상당가 및 실업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
<b>연구발표 (자료집 발간)</b>	수련을 토대로 세미나 자료집을 발표하고, 실직자 집단상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workshop

## 인도자원봉사활동

### • 유치원생들 시험

직영유치원(3/19-23), 수자타아카데미(3/19-28)  
 유치원생 총 103명이 참석을 하였다.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 총 33명중 32명,  
 아자드비가 유치원 : 총 34명중 26명,  
 소라즈비가 유치원 : 총 27명 중 25명,  
 소라즈비가 유치원 : 총 22명 중 20명이  
 참가했다.



### • 상급생 10학년 국가고시 시험

소년 3명(자그지반, 라홀, 라즈), 소녀 2  
 명(수니따, 니르말라) 자원봉사교사 회의  
 에 총 12명이 신청 7월까지 할 수 있는 5  
 명을 선정, 4월 8일 인터뷰와 오리엔테이션  
 을 하기로 하였다.



### • 지바카병원 현재 총 환자수 442명

많이 알려지면서 JTS 수혜대상이 아닌 먼 마을 주민들 환자수가 50%를 차지.  
 (15일 -176명, 16일 -64명, 17일 -69명, 19일 -72명, 20일 -60명)

### • Hospital Management Idea Meeting(3월 20일, 27일)

병원과 마을개발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지에 대한 것이 주된 내  
 용이었고, 이 회의는 6월까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 유니세프 방문과 교육용 비디오 테잎 기증받음(3/21)

마두리와 산티시스터가 파드나의 유니세프를 방문, 동계스와리의 부녀회와 어  
 린이들의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의논,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10개 지원받다.

### • 월례회의와 보고회(3/24)

새로 지은 지바카병원 2층 강당에서 가졌다. 6개 마을 56명의 부녀회원과 20명  
 의 마을 교사, 10여명의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들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각  
 마을 상황 보고로 이루어졌고 점심식사 후 1) 타밀나두에 다녀 온 마을리더들  
 의 견학보고 2) 구자라트 구호캠프 3) 마두리의 스리랑카에서 열린 Workshop  
 다녀온 보고회가 있었다.

## 북한지원사업

### · 창매협동농장에 비료보내기

4월 11일 오후 3시 인천 영진공사 CFS에서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JTS 이사장님과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고, 창매협동농장에 138톤의 비료(복합비료, 요소, 인산 비료)와 농업용 비닐 10.5톤, 옥수수 종자(수원 19호) 1톤이 보내진다. 이는 인천항에서 4월 13일 북한 남포로 보냈다.



### · 라진 - 선봉지역 · 경성군 비료보내기

부산에서 라진 - 선봉지역과 경성군으로 보내지는 농업용지원(복합비료200톤, 요소비료 23톤, 비닐 24톤)은 4월 22일에 약 13 컨테이너를 보내졌고, 5월에는 요소비료 57톤 분량 3 컨테이너를 보낸다.



## 국내사업

### · 국제ngo인턴봉사단 보고회

3월 25일,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인도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었던 5명이 모두 귀국, 보고회를 가졌다. 봉사자들의 활동 내용은 지이바카 병원 공사 참여, 망코시힐유치원과 소라지비가유치원 꾸미기, 바랄푸르 수해지역 구호활동, 학생들 가정방문과 마을유치원 수업 등을 하고 돌아왔다.

### · 국제협력단 지원약정식에 참가

3월 28일 국제협력단(KOIKA)은 지난해에 지이바카병원 건물신축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중학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인 4,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했다.



### · 제 10차 정기이사회

3월 28일 오후 5시에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2000년 사업결과보고와 결산내역심의 및 2001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 · 2001년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활동 사진전

해외원조단체들간의 국제협력사업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구축 및 참여를 위한 행사로 jts 인도 활동 사진전 전시된다. 5월 8일-14일, 경복궁역 미술전시관에서 갖는다.



## 부산 후원의 밤 후원금 현황

티켓판매 부산 : 4월 25일    서울 : 4월 15일 현재

MBC문화방송	200,000	권필순	50,000	김선희	150,000	김일임	30,000
강경숙	30,000	권해문	30,000	김성규	30,000	김정난	30,000
강경화	30,000	권현진의	60,000	김성옥	30,000	김정선	30,000
강미강	30,000	김경나	110,000	김성우	30,000	김정숙	300,000
강미경	30,000	김경숙	50,000	김성원	50,000	김정순	30,000
강미순	30,000	김경순	30,000	김성환	50,000	김정순	30,000
강봉연	10,000	김경옥	30,000	김수현	20,000	김정옥	30,000
강석자	10,000	김경옥	30,000	김숙자	30,000	김정희	30,000
강성덕	90,000	김경향	30,000	김숙자	30,000	김종련	50,000
강영희	30,000	김관태	6,000	김순옥	30,000	김종만	30,000
강윤규	30,000	김광선	30,000	김순희	30,000	김종아	30,000
강정숙	50,000	김광원	30,000	김순희	50,000	김종현	30,000
강학정	30,000	김규태	50,000	김승미	30,000	김주숙	20,000
강호대	30,000	김기영	30,000	김애경	30,000	김중하	30,000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기철	30,000	김애경	50,000	김지선	60,000
	270,000	김동운	50,000	김영수 목사	300,000	김지영	30,000
견불행	30,000	김말자	30,000	김영숙	30,000	김지현	30,000
견성암	100,000	김명숙	5,000	김영옥	30,000	김지혜	10,000
고순남	30,000	김명숙의	130,000	김영자	30,000	김창덕	30,000
고연화	30,000	김명희	30,000	김영자	10,000	김춘애	30,000
고윤경	30,000	김명희,이용태	30,000	김영출	50,000	김태형	30,000
고필순	10,000	김문규	30,000	김영환	30,000	김태휘	30,000
공영애	30,000	김문희	30,000	김영희	10,000	김하수	30,000
곽의봉	30,000	김미숙	30,000	김예진	35,000	김해준	60,000
곽정란	30,000	김미영	30,000	김옥선	30,000	김현웅	60,000
구길용	30,000	김미옥	30,000	김옥자	30,000	김현자	300,000
구품상	30,000	김미자	30,000	김용대	30,000	김형수	30,000
권명숙	30,000	김미정	30,000	김용문	30,000	김형희	30,000
권미화	30,000	김미현	30,000	김용배	30,000	김화숙	30,000
권소영	100,000	김민정	100,000	김용환	30,000	김휘숙	60,000
권수정	30,000	김민정의	80,000	김월애의	150,000	김흥순	30,000
권순옥	30,000	김병현	30,000	김윤경	30,000	남규현	50,000
권영자	5,000	김부자	60,000	김윤근	30,000	남상분	30,000
권영자의	120,000	김분선	30,000	김율배	30,000	남성자	30,000
권주형	30,000	김석철	50,000	김은홍	30,000	남일의	10,000
권차남	100,000	김선률	50,000	김인경	30,000	남점자	30,000
권태순	30,000	김선화	30,000	김인배	30,000	노명이	20,000



# 부산 후원의 밤 후원금 현황

티켓판매 부산 : 4월 25일      서울 : 4월 15일 현재

대지월 30,000	박선희 50,000	방황자 30,000	석중옥 50,000
도왕자 30,000	박선희 30,000	배성기 680,000	석해옥 30,000
도인봉 30,000	박성남 30,000	백경자 30,000	석형산, 양영자 100,000
도일심 30,000	박성년 30,000	백경희 30,000	상공모 30,000
도희정 30,000	박성순 30,000	백성희 30,000	성연희 30,000
돈오심 30,000	박성희 60,000	백인순 220,000	성진한의원 100,000
류성자 120,000	박수신 30,000	백인자 90,000	손경숙 30,000
류정숙 30,000	박수이 30,000	법명스님 100,000	손경자 30,000
류환선 30,000	박수임 60,000	법운하 30,000	손권약 30,000
명심화 30,000	박순생 30,000	변경자 30,000	손명자 50,000
무주상보시 120,000	박연화 30,000	변인규 30,000	손미혜 10,000
무진덕 20,000	박영란 30,000	본각스님 100,000	손순희 30,000
문계숙 50,000	박영선 100,000	부경민 30,000	손영희 30,000
문근나 30,000	박영숙 30,000	부경민 30,000	손진길 30,000
문길연 30,000	박용옥 30,000	부부선재회 200,000	솔아원 30,000
문덕임 30,000	박월숙 300,000	부산녹색연합 120,000	송 실 30,000
문성렬 30,000	박은정 30,000	부산대학교 불교교수회 100,000	송부순 30,000
문수심 30,000	박은주 50,000	부산불교교육대학 100,000	송성룡 60,000
문운정,김길득 30,000	박정근 130,000	부산불교교육대학 100,000	송종업 60,000
문정자 30,000	박정덕 100,000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들 180,000	신동재 100,000
박경례 30,000	박정숙 30,000	불교전시관 50,000	신말순 60,000
박계선 200,000	박정순 30,000	서경숙 30,000	신미자 30,000
박규희 30,000	박정화 30,000	서명숙 30,000	신보경 30,000
박근숙 300,000	박지연 100,000	서묘연 10,000	신순말 90,000
박기현 50,000	박지연 30,000	서보순 30,000	신영미외 270,000
박길미 300,000	박진경 50,000	서성님 30,000	신옥련 30,000
박동영 90,000	박진우 100,000	서숙자 30,000	신용선 30,000
박동채 30,000	박진현 50,000	서영귀 30,000	신점식 200,000
박동현 90,000	박차점 30,000	서용준 30,000	신해정,전상록 30,000
박말순 30,000	박창식 100,000	서은경 200,000	신혜진 50,000
박명희 30,000	박춘식 100,000	서정락 30,000	신화숙 30,000
박미영 30,000	박춘희 30,000	서정미 30,000	심미경 90,000
박봉희 10,000	박춘희 30,000	서혜경 30,000	심지희 30,000
박부애 30,000	박현주 50,000	서희원 30,000	안경희 30,000
박상현 30,000	박희성 30,000	석정옥 30,000	안미애 30,000
박선자 30,000	반야심 30,000		안석옥 50,000
			안순득 50,000



# 부산 후원의 밤 후원금 현황

티켓판매 부산 : 4월 25일    서울 : 4월 1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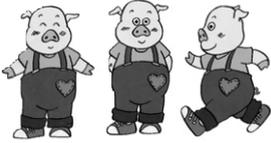
안순자	30,000	윤숙경외	60,000	이순란	60,000	이창기	60,000
안영선	30,000	윤정자	30,000	이순애	100,000	이태협	30,000
안향숙	30,000	윤종근	30,000	이순자	30,000	이학문	30,000
안혜원의	550,000	윤차영	20,000	이순희	30,000	이한숙	150,000
양 영	60,000	이강주	300,000	이순희	50,000	이해일	30,000
양명수	30,000	이경녀	30,000	이승식	30,000	이현아	100,000
양산청소년문화원		이경련	30,000	이연영	50,000	이혜옥	20,000
	180,000	이경선	30,000	이연희	30,000	이흥숙	50,000
양선아	30,000	이경애	30,000	이영순	30,000	이화선	30,000
양수미	30,000	이경주	30,000	이영순	100,000	이희자	30,000
양정운	30,000	이경화	30,000	이영옥	30,000	이희찬	30,000
염상섭	100,000	이경희	20,000	이영자	30,000	이희창	30,000
여경자	30,000	이영희	30,000	이영희	20,000	이희태	50,000
여련화	30,000	이금자	30,000	이영희	30,000	일진행	30,000
여여화	200,000	이기태	30,000	이영희	30,000	임경옥	30,000
연영자	30,000	이대훈	30,000	이영희	30,000	임경화	90,000
연제구공동체	30,000	이말입	200,000	이옥수	30,000	임미진	30,000
염윤희	30,000	이명우	320,000	이윤희	15,000	임순화,변형석	60,000
염윤희	50,000	이명자	30,000	이은경	30,000	임영애	30,000
오성기	30,000	이명훈	30,000	이은지	30,000	임은숙	30,000
오수복	100,000	이문희	30,000	이은희	30,000	임재택	50,000
오재정	30,000	이미은	30,000	이은희	30,000	자명환의원	60,000
오정석	30,000	이백련	20,000	이인경	50,000	자비희	30,000
오정화	30,000	이병노	30,000	이인옥	30,000	장경식	100,000
오찬옥	30,000	이복순	30,000	이일지	30,000	장경애	30,000
오천복	30,000	이봉원	50,000	이재욱	30,000	장명화	30,000
외국인노동자취우회모임		이분조	15,000	이재정	30,000	장순옥	30,000
	90,000	이상입	50,000	이정래	100,000	장업인	30,000
우은숙	30,000	이선규	50,000	이정배	30,000	장영옥	30,000
우혜진	30,000	이선예	30,000	이정우	30,000	장옥순	30,000
유경원	100,000	이선희	10,000	이주옥	60,000	장일선	300,000
유근태	100,000	이성균	100,000	이준하	30,000	장일선	60,000
유금련	100,000	이소곡	100,000	이준호	30,000	장창식	30,000
유보라	30,000	이소향	30,000	이중선	30,000	장택식	100,000
유애경외	210,000	이승화	30,000	이중천	30,000	장택희	30,000
유영수	30,000	이수경	100,000	이지영	30,000	전미연	30,000
윤남숙	50,000	이숙자	30,000	이지영	30,000	전병득	30,000



# 부산 후원의 밤 후원금 현황

티켓판매 부산 : 4월 25일    서울 : 4월 15일 현재

전상록 30,000	정현진 60,000	최성희 60,000	허애영외 150,000
전은경 30,000	정현철 30,000	최순이 30,000	허양원 30,000
전정립 30,000	정흥희,송종순 200,000	최순자 30,000	허영미 50,000
전춘선 30,000	제희순 30,000	최순황 30,000	허영조 30,000
전춘선 30,000	조건호 90,000	최승희 30,000	허익량 30,000
전혜숙 50,000	조경순 30,000	최시내 30,000	허정순 60,000
전혜정 30,000	조규현 30,000	최신만 60,000	허중구 30,000
정각스님 100,000	조미경 50,000	최영란 30,000	현영옥 10,000
정경숙 30,000	조선영 30,000	최윤희 30,000	현영옥 30,000
정경애 30,000	조상현 30,000	최윤희 50,000	현익채외 800,000
정귀조 30,000	조순자 30,000	최은자 30,000	혜총스님 500,000
정규덕,황영숙 1,000,000	조오세 50,000	최은희 60,000	홍법원 하도명하 500,000
정금숙 30,000	조윤상 30,000	최재두 30,000	홍혜선 30,000
정덕연 30,000	조윤숙 50,000	최정순 100,000	홍혜선 30,000
정미완 30,000	조재성 30,000	최정희 30,000	황동희 30,000
정삼덕 100,000	조정재 30,000	최정희 20,000	황무연 30,000
정소운 50,000	주한섭 30,000	최정희 30,000	황사동 30,000
정수걸외 120,000	지금순 30,000	최진서 30,000	황성남 30,000
정순돌 30,000	지대무 60,000	최춘우 80,000	황세현 50,000
정순완 60,000	지덕심 30,000	최현숙 50,000	황영례 30,000
정순태 30,000	진공심 30,000	최현주 30,000	황인석 30,000
정영부외 120,000	진성인 30,000	최혜림 100,000	황정인 50,000
정영주 30,000	진속희 50,000	최홍권 30,000	황태순 30,000
정옥남 30,000	진영규 10,000	최환식 30,000	황희순 200,000
정원섭 100,000	차미리 30,000	최후진 30,000	당일모금합 743,000
정윤주 15,000	차순자 100,000	추효영 10,000	
정은지 30,000	차양자 30,000	편정자 30,000	
정은지 30,000	차혜영 30,000	하갑정 30,000	
정재남 30,000	차홍선 30,000	하나방 20,000	
정재수 100,000	천윤경 30,000	한기백 100,000	
정정숙 30,000	최경남 30,000	한마음선원경남중부지원 300,000	
정정엽 50,000	최경순 30,000	한초자 30,000	
정정원 50,000	최광수 50,000	한화인 30,000	
정종철,이인숙 100,000	최남선 30,000	함용마 200,000	
정진화 50,000	최병훈 30,000	해인한의원 100,000	
정필순 60,000	최봉자 30,000	허두리 30,000	
정필연 30,000	최설시 30,000		



## 통일돼지저금통우원금현황(3,4월)

### ● 본동초등학교

안재숙 5,900 김정은(3-2) 3,610 김희수(3-3) 5,500 김현조(5-2) 7,800 김현조(5-2) 8,580  
이현준(6-2) 7,940 정바른(3-3) 7,250 무명(3-2) 3,220 송수빈(6-3) 8,030 김고은(6-3)  
7,600 박태현(6-2) 2,400 신나리(6-3) 2,660

### ● 구산중학교 김복경 7,070

### ● 대전법당 194,820

### ● 선린학원

원상민 8,630 강형구 26,630 구수진 18,410 신성빈 23,250 이승수 26,950 이택진 24,970 임  
석봉 9,500 정준우 26,460 김승주 31,580 이태규 11,920 나기혁 49,330 김정현(A) 10,390  
금민수 6,270 노상철 5,150 김정현(B) 11,330 박재웅 19,700 손상영 54,050 강은옥 15,990  
이수용 1,860 손은정 16,380 박다현 20,100 이영지 18,050 황인정 7,090 신예진 12,860 강  
지현 24,470 최세영 10,910 김동운 13,400 송진호 3,300 조성운 11,520 이예린 29,480 허찬  
행 19,130

### ● 동그라미어린이집

김원영 2,510 전경원 6,430 포민희 6,670 무명 3,600 이강원 11,560 무명 3,090 장원희  
18,170 무명 1,210 이지훈 5,020 무명 1,350 이강원 2,750 이주원 5,480 김재남 10,470 박  
재화 3,750 태오 6,900 무명 4,760 박정훈 5,000 무명 3,100 이진우680 최강산 3,320 문희  
수 5,720 임호선 3,340 김소현 2,100 오지선 7,410 무명 3,980 장승필 4,720 무명 550 김태  
영 1,700 김보라 310 김창훈 610 박준석 2,170 최연희4,670 이은수 2,940 무명 5,740 정혜  
지 3,620 유환수 3,000 임단비 3,170 이진원 12,270 최재영 980

### ● 개인

정순덕 26,170 정명숙 80,370 권혜숙 25,090 조정숙 16,600 박혜경 34,100 김명숙 22,420  
이영규 14,020 박혜정 15,200 김애경 12,130 박용훈 95,390 윤명옥 72,030 김종숙 18,060  
무명 33,560 무명 27,680 한상목, 한정호 21,330 유승관 19,890 설명규 9,290 김명화 40,750  
민수경 30,730 김중희 27,410 이주영 2,700 손경숙 60,450 김선화 2,740 유영일 26,710 강  
정숙 41,290 오정화 23,110 이남선 10,180 박성희 19,130 무명 8,110 무명 22,340 무명  
7,190 정지수 22,000 엄지현 11,660 김문희 24,480 정지혜 4,690 허경미 92,100 설희정  
28,810 이선옥 31,500 이승숙 55,600 서민호 55,620 장금숙 9,620 최완옥 24,410 장성호  
37,810 김영신 13,800 김상문 26,080 진정화 13,000 김영임 31,710 남청자 19,540 안두영  
36,020 김영희 10,000 이미숙 34,000 육동순 43,150 박정모 36,870 김지은 21,000 박태순  
19,240 무명 45,150 권난봉 43,730 이성민 18,130 김철환 10,780 조동희 17,610 김소영  
22,460 김소영 68,770 김재화 26,840 김창규 7,670 황민호, 김소영 15,870 김순남 5,370 고  
진경 20,180 권윤정 19,140 권영민 18,200 남산우 5,310 박민선, 남산우, 남성우 20,550 방동  
필 61,940 박민선 17,720 보수법사 41,780 이명옥 12,210 유경동 29,960 유경동 57,730 안  
숙희 16,950 오학순 23,890 윤정연 25,200 지동환 8,710 지소운 30,010 지한주 28,740 전용  
완 58,620 정영옥 43,860 최원중 46,310 한금옥 66,500 한정임, 전정훈 20,700 허경미  
45,900 이유근 25,780 박영자 34,330 김부경 20,290 윤재호 30,280 옥호광보살 17,390 서명  
희 23,600 무명 51,100 무명 6,250 무명 32,000

● 무명은 저금통에 이름을 적지 않은 분입니다.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1년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북한 어린이 결연

임호순-211-02257-11  
 강필성,강동구-211-02258-11  
 이영석-211-02259-11  
 백은정-211-02260-11  
 이옥수-211-02261-11  
 박경미-211-02262-11  
 김영은-211-02263-11  
 길효식-221-02264-11  
 심양숙-211-02265-11  
 전창훈-211-02266-11  
 정말숙-211-02267-11  
 김순자-211-02268-11  
 박정숙-211-02269-11  
 허영숙-211-02270-11  
 김현섭-211-02271-11  
 이미숙-211-02272-11  
 재송희-211-02273-11  
 조금자-211-02274-11  
 옥영미-211-02275-11  
 김양이-211-02276-11  
 성재열-211-02277-11  
 이동진-211-02278-11  
 유인자-211-02279-11  
 이명실-211-02280-11  
 이경순-211-02281-11  
 박소희-211-02282-11  
 이상임-211-02283-11  
 전경혜-211-02284-11  
 (주)소암상사-211--02285-11  
 유영준-211-02286-11  
 우선아-211-02287-11  
 오원순(우철아네)-211-02288-11

김희섭-211-02289-11  
 이해진-211-02290-11  
 이지연-211-02291-11  
 김지호-211-02292-11  
 김응법사님-211-02293-11  
 이상수-211-02294-11  
 윤석경-211-02295-11  
 최진룡-211-022996-11  
 임미진-211-02297-11  
 김성옥-211-02298-11  
 김승미-211-02299-11  
 이 운-211-02300-11  
 박의인-211-02301-11  
 이정돈(임정)-211-02302-11  
 유광진-211-02303-11  
 권수정-211-02304-11  
 전경숙-211-02305-11  
 배주이-211-02306-11

### 인도 어린이 결연

차재헌가족-111-02519-14  
 김현민,현우-111-02520-14  
 신연화-111-02521-14  
 박해정-111-02522-14  
 오영수-111-02523-14  
 정명자-111-02524-14  
 김하수-111-02525-14  
 조정휘-111-02526-14  
 황화숙-111-02527-14

윤종배-111-02528-14  
 손영이-111-02529-14  
 이은지-111-02530-14  
 조윤숙-111-02531-14  
 천도스님-111-02532-14  
 불광회-111-02533-14  
 이영숙-111-02534-14

### 라선결연결연

사법연수회통일법학회  
 -212-00210-11  
 인헌중학교교사들(1)  
 -211-00211-11  
 인헌중학교교사들(2)  
 -212-00212-11  
 펜타시스템아티잔동호회  
 -212-00187-11  
 다르마와 새빈  
 -212-00213-11  
 서라벌고등학교2년5반  
 -212-00214-11  
 손준기-212-00215-11  
 박정덕사무소  
 -212-00216-11  
 SK에버텍-212-00217-11



## 특별후원금

2001년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들어온 명단입니다

### 특별후원금

#### 3월의 특별후원금

신흥사(성일스님)-500만원  
 성일로영가-500만원  
 광주선덕사(방생)-100만원  
 각해보살님-100만원  
 김재우-100만원  
 정은숙-100만원  
 표순전-50만원  
 성불암산도(방생)-30만원  
 한태숙-20만원  
 노숙자-10만원  
 박종천-10만원  
 한상천-337루피  
 각해보살님-537루피

#### 4월의 특별후원금

청안사-100만원  
 L.A정토회  
 -2,012,716원(1518\$)  
 이해주영가-100만원  
 정원중-30,000원  
 김명홍-10만원  
 제일한국학생동맹  
 -\$567,951(756,050원)  
 이혜성-100만원

### 물품지원

성불암-의류 7박스  
 자비의 집-의류11박스

•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소식지 뒷면에 나와 있는 은행으로 납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호(28호)에 라진, 선봉유치원, 탁아소 결연 현황에 양산안과, 황선우(황순천), 영축산사람들, 인현중학교 통일돼지팀(인현중학교), 정은숙산부인과등이 빠졌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제28호 신입회원명단이 북한어린이와 인도어린이 결연이 바뀌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통일돼지저금통을

#### 키워주세요



제이티에스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는 모금운동으로 돼지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돼지저금통.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분량합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문의 : 02-587-8995



#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1. 4. 26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1. 4. 26현재

#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견학현황

2001. 4. 26현재





#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1. 4. 26현재



- ◆ 그 동안 후원해 주시던 단체들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속에 도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스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 프로그램

##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80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가방, 신발, 장난감 등

##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E-mail:jts@jts.or.kr

http://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